

불교적 메시지를 주는 영화 8選

미국 온라인 영화 사이트 불교영화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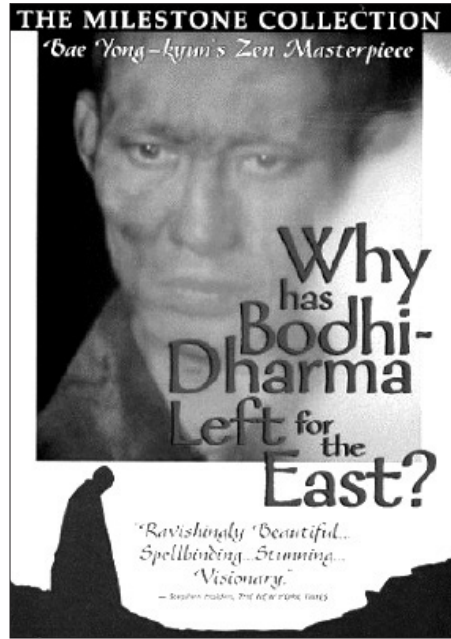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불교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온라인 영화 상영관 사이트 그린시네(GreenCine)는 '영적인 영향을 준 불교 영화들(The Most Spiritually Affecting Buddhist Movies)' 이라는 제목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 8편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영화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등 2편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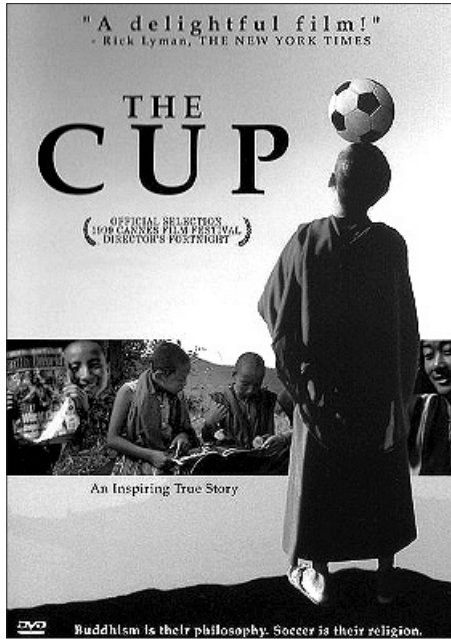
그린시네는 "영화로 불교생활과 영적진리를 묘사하기란 서구 종교의 역사를 묘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법(Dharma)은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며 "깨달음은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심오한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눈길을 끄는 영화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며 불교영화 8편을 소개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다. 동자승이 성장할 때까지의 구도 과정을 담은 이 영화는 감독이 그동안 탐구해 왔던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애증을 불교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있다. 인간이 어디선가 왔다가 다시 갈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듯이 얼굴도 모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한 아이가 절과 속세를 넘나들며 겪게 되는 삶의 여정을 설화적인 틀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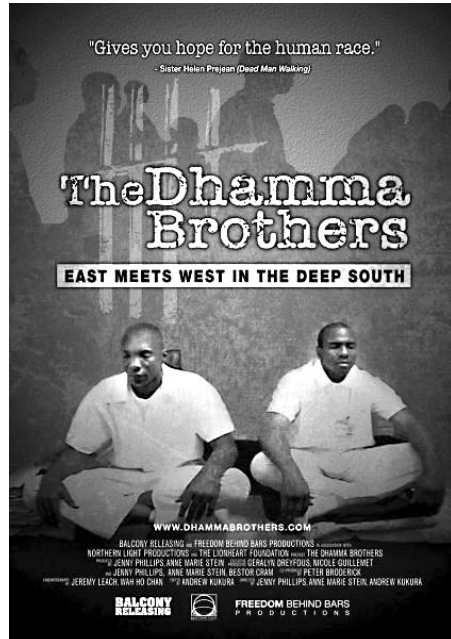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배용근 감독의 작품으로 깊은 산중의 퇴락한 한



미국 온라인 영화 상영관 사이트 그린시네(GreenCine)는 '영적인 영향을 준 불교 영화들'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더 컵(The Cup)' '담마 형제(The Dhamma Brothers)' 포스터.



미국 온라인 영화 상영관 사이트 그린시네(GreenCine)는 '영적인 영향을 준 불교 영화들'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더 컵(The Cup)' '담마 형제(The Dhamma Brothers)' 포스터.



미국 온라인 영화 상영관 사이트 그린시네(GreenCine)는 '영적인 영향을 준 불교 영화들'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더 컵(The Cup)' '담마 형제(The Dhamma Brothers)' 포스터.

'봄·여름...' '달마가 동쪽으로...'

한국영화 2편 선정돼

담마형제, 시간의바퀴 등 다큐 소개

절에서 젊은 수도승과 노스님, 그리고 동자승이 속세의 번뇌와 오묘한 진리 속에서 벌이는 구도(求道) 과정을 정적인 화면 속에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영화는 제42회 칸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Uncertain Regard)' 부문에 선정됐고, 스위스에서 열린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이밖에 그린시네는 '더 컵(The Cup, 1999)' '시간의 바퀴(Wheel of Time, 2008)' '쉴레드라인(1998)' '스타 워즈 에피소드 - 시스의 복수' '평화로운 전사(Peaceful Warrior, 2006)' '담마 형제(The Dhamma Brothers, 2007)' 등을 불교적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화로 꼽았다.

'더 컵(The Cup)'은 1999년에 제작된 키엔츠 노부 감독의 부탄 영화다. 히말라야 부탄에서 만들어진 첫 장편 극영화로, 웰드컵과 종교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를 유쾌하게 다루면서 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담마 형제(The Dhamma Brothers)'는

2002년 5월 미국 알라바마교도소의 중범죄자들에게 불법과 위법사나를 접목한 교화 활동 이후 이들의 심성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를 다룬 실험영화다. 명상프로그램으로써 4시간 동안 마음의 고요함을 체험한 이들은 그들의 범죄를 참회하게 되고 자신들에게도 순수한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확인해 간다. 감독 제니필립스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불교에 의한 변화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웠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제작 기간동안 재소자들의 호응과 참여가 증가하고 이들에게 붓다의 메시지가 희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日 대표적 티베트 불교학자

세계의 불교학자(34)

오노다순조 日 福교대학 교수



오노다순조(小野田俊藏) 福교대학 교수는 일본학계에서 티베트학 분야로 주목할만한 학자다.

그는 일본에서 티베트어 회화를 자유로이 구사하기 시작한 초기 세대로, 몽골어와 만주어에도 조예를 가지고 있다.

일본 티베트학의 1세대 대가 아마구치 즈이호(山口瑞鳳)에게 큰 영향을 받은 오노다순조 교수는 스위스의 티베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인도와 라사 등을 현장 체험하며 연구했다.

특히 박사과정 입학과 더불어 시작된 스위스 유학에서, 당시 스위스에 티베트 겐룩과 계통의 세라사 전통 사찰을 세운 게세 람덴의 문하에서 티베트의 전통적인 승원 교육을 2년 간 수학하기도 했다.

이런 영향으로 그는 티베트의 논리학, 철학, 음악, 미술, 본교(티베트 전통종교) 등 티베트문화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티베트 탕카를 직접 그리고 기타 연주와 노래에도 능한가 하면, 인도의 시타르와 티베트 현악기들도 연주하는 예술적 재능을 키웠다. 이런 다방면으로의 관심을 그는 <티베트의 워트 만달라(1991)> 같은데서 잘 보여줬다.

대부분의 일본 티베트 연구자들이 불교학이나 철학적 관점에서 관련 티베트문헌으로 관심이 옮겨간 데 반해, 오노다순조 교수는 처음부터 티베트문화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다.

또한 만주와 몽골지역의 불교까지 관심을 넓혀 <장역 무량수경 율란바토르 사본(2003)>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티베트에 한정됐던 그의 관심변화는 보다 열린 세계를 지향하며 소수민족들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그의 세계관과 연결됐다. 그는 옛 몽골제국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심, 그리고 다양성을 융인했던 몽골제국이 추구했던 이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다얀우르스'라는 단체에 참가해 티베트문화와 중앙아시아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노다순조 교수는 다수 교정본을 발견하기도 했다. <아비사마야 알람카라>의 티베트어 주석서인 <리첸빠 뉘단쥬>를 교정해(1983) 문헌학적 역량을 보여줬고, 데이비트 잭슨(1988), 드레이프스(1994) 등 과도 공동 연구한 교정본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티베트어 해석을 할 때 철저히 어원학적 분석을 통해 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전문용어들도 한 음절 단위로 어원을 분석해 들어가 종합해 해석함으로써 보다 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아마구치 즈이호에게서 영향 받은 오랜 기간 변천돼온 티베트어 철자법에 따라 주요 사전들에 나오지 않는 철자의 단어까지도 다양한 기능성으로 탐색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는 티베트 승원 논리학인 두라(bsdus grwa)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이다.

10여 년 간 지속되는 티베트 승원 교육의 가장 첫 단계에서 가르쳐지는 두라 논쟁술은, 변함의 형식화된 사용과 같이 인

티베트·몽골어·만주어 구사

티베트 전통 승원교육 받기도

몽골·만주지역 불교도 연구

티베트 두라 논쟁술 천착

도불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술적인 측면들이 강조돼 있고, 형식화 돼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오노다순조 교수는 두라시스템에 천착해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발표했으며 <티베트 승원 논쟁술: 두라 논리의 역사와 구조에 관한 연구(1992)>라는 영역 버전을 발표했다.

한편 티베트문화에 대한 그의 애정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티베트인들의 관점과 주장에 대해 가능한 한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려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티베트의 종교지도자들과 그 행적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티베트민족주의가 가미된 주장이나 신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3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한다는 점인데, 그 점에서 그의 주장은 매우 신뢰할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주위의 변방 문화에 관심을 가진 그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아웅산 수치 美 '의회 금메달' 수상

달라이 라마·요한 바오로 2세도 선정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67) 여사가 9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회가 수여하는 최고 명예인 '의회 금메달(Congressional Gold Medal)'을 받았다.

수치 여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은 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 가운데 하나"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유와 정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미얀마의) 암흑의 시기에 미국 국민이 우리를 가슴 속에 담아준 데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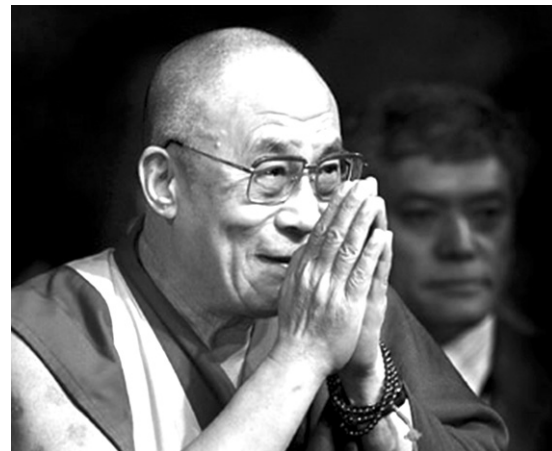
미국 의회는 지난 2008년 당시 가택연금 상태였던 수치여사를 의회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했지만, 지금까지 금메달을 전달하지 못했다.

4년만에 금메달을 받은 수치 여사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도움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치 여사를 '친구'라고 표현한 뒤 "당신이(미얀마의) 의원 자격으로 민주주의의 중심인 미국 의회에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쁘다"고 감격을 표시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축사에서 수치 여사를 "나의 영웅(my personal hero)"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수치 여사는 의회 행사 후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30분간 미얀마 민주화·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처음 만난 수치



달라이 라마(좌)와 아웅산 수치 여사는 9월 19일 미국 의회가 수여하는 최고 명예인 '의회 금메달(Congressional Gold Medal)'을 받았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9월 19일 미국 의회가 수여하는 최고 명예인 '의회 금메달(Congressional Gold Medal)'을 받았다.

여사에게 미얀마의 정치, 경제 개혁 증진과 미얀마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미국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의회는 달라이 라마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도 의회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나은 기자



藝園®

http://www.예원물.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장판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추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문의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촬영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